

2020.06.08.

발행인 | 유재우 전 화 | 02.781.2980-1 팩 스 | 02.781.2989  
홈페이지 | www.kbsunion.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bsunion 이메일 | kbsunion@gmail.com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1988.5.20

KBS노동조합 창립

2008.8.8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KBS 직원행동 출범

2009.12.18

언론노조 KBS지부 창립

2019.2.14

KBS본부 교섭대표노조  
지위 획득

2020.5.20

조합원수 3천명 돌파,  
과반노조 선언

## 자랑스러운

##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노동조건과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패 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근로자 과반노조는 조합원과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 전체 직원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 노조의 권한을 바탕으로 추진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노사협의회 정상화...“고충의 해소”

근로자 과반노조인 KBS본부는 근참법에 따라, 수년째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2년에 한 번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임의적 노사협약과 달리 분기별 정기 또는 임시회를 통해 노동자의 채용, 인사와 복지제도의 개선, 고충처리 등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상 고충은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누적됐습니다. KBS본부는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고,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조합원과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 전체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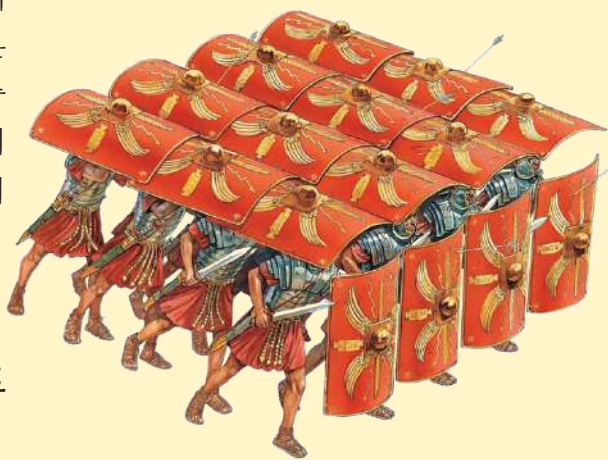
## 재량 간주·특별연장 등 유연근로제도 검토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은 제작환경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 방송업은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아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1주가 업무일 기준 5일이냐, 휴일을 포함한 7일이냐'라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1주=7일' 명문화로 주당 노동시간 한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변화로 노동조건은 개선됐지만, 방송업의 특성 때문에 업무상 애로도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스포츠와 보도 분야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변화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동

자에 불리한 제도인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본부는 그동안 해당 구역 조합원 및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드라마와 예능 분야에 적합한 재량근로제, 스포츠와 보도 분야에 적합한 특별연장근로제도, 간주근로제도에 대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KBS본부는 사측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조합원과 직원들의 업무상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정상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설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근로자 과반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기금 협의회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복지기금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KBS본부는 진통을 겪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 협의회와 이사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상화... “특별연장근로 등 작업환경 감시 강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과반노조인 KBS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화해 작업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안전과 보건 관련 인력의 채용 및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유연근로제도 도입으로 사측이 남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시체계의 핵심은 업무량 급증에 관한 특별연장근로시 작업환경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가혹한 날씨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작업환경평가와 인력운용의 문제, 사측 준비의 미비점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KBS본부는 노사협의회 및 산보위를 통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받고, 검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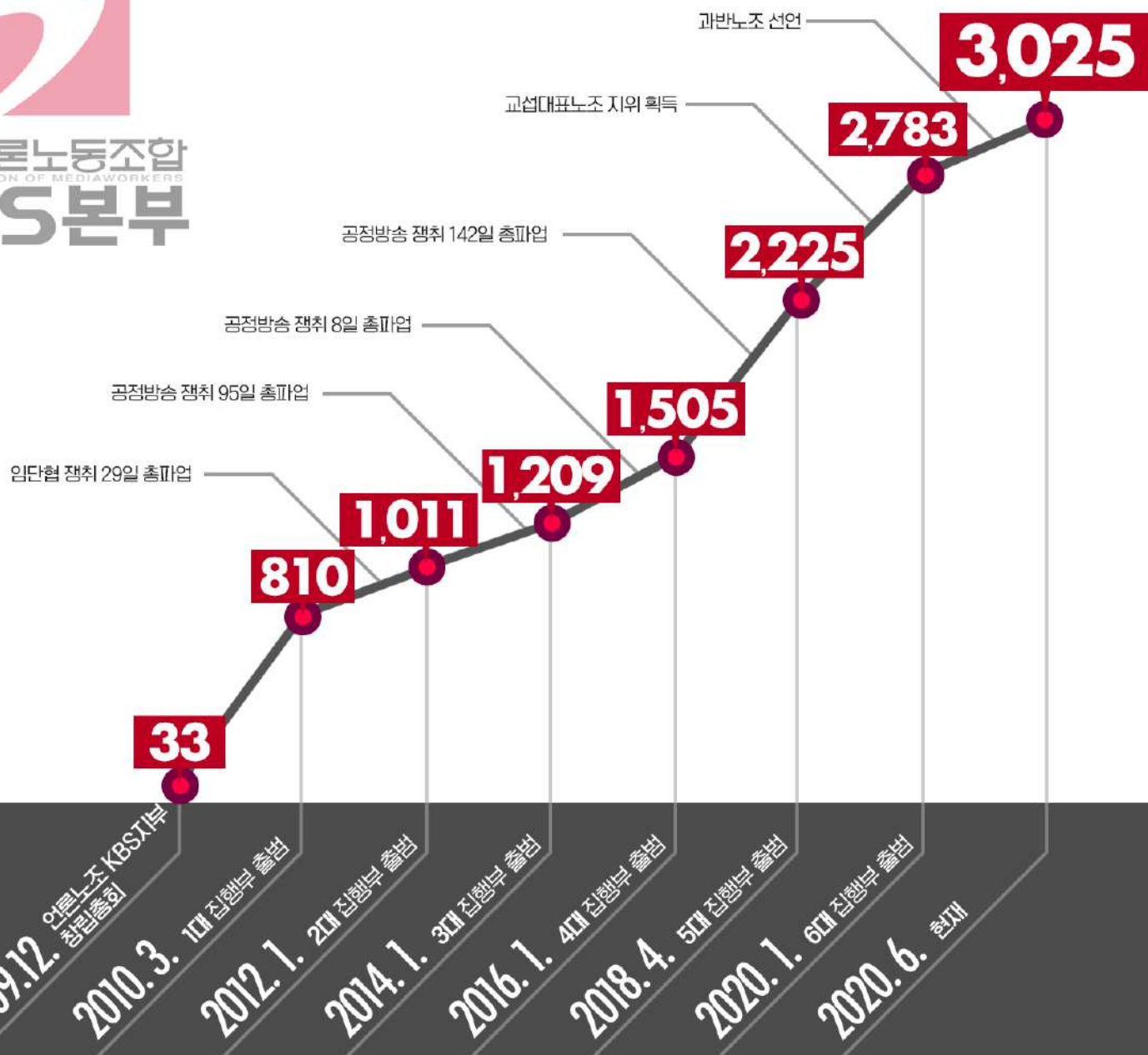
## 칼날과 방패는 동전의 양면... “조합원의 참여가 방향을 결정”

사내 다른 노조가 인정하듯 근로자 과반노조의 권한은 큼니다. 그러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이라는 칼날은 조합원과 직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참여입니다.

## KBS본부의 역사와 조합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 과반노조 기념 표지석 설치

노조원 3천시대를 축하하는 표지석을 소개합니다.

새노조입니다.

국민과 함께 영원한 새노조. 국민과 함께, 국민의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정신이 있는 한, 우리 노조는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연표 밑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할 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표지석은 앞으로 KBS인과 시민들에게 우리 노조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알릴 것입니다.



인터뷰

# 노조와 동갑내기 32살 조합원에게 듣는다

2020 전체 60분

KBS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했던 건 지난 1988년, 나이로 따지면 올해 32살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노조 KBS본부의 3천 조합원 가운데는 노동조합과 같은 나이인 '1988년생 조합원'들만 93명이 있고요. 88년생 조합원들은 '동갑내기 친구'인 노동조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 재생

+ 내가 찐한 콘텐츠



김재국 조합원

39기

방송기술  
방송인프라구역



조나은 조합원

39기

PD  
시사교양구역



이세중 조합원

41기

기자  
취재구역

Q.

39기 두 분, 41기 한 분이네요. 저희 노조가 1988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딱 32살 됐어요. 노조가 32살 동갑내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제 32년 인생만 되돌아 생각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함께 움직였을 테니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데리고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노조 역사가 오히려) 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KBS가 30~40년 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80~90년대 현대사의 맥락에서 노조가 활동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노조가 분리되기 전까지 단일 노조로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갈라지고 나서는 뭔가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을 하나로 합치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노동조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년이나 된 유구한 역사는 칭찬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써 KBS 노동자들을 얼마나 결속을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 보여요.

Q.

입사 당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여기가 첫 직장이었고, 제가 노동자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찾으려면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KBS노조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본부노조로 옮겨왔어요.

Q.

노조를 옮기는 데 고민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계기술국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야외 업무가 많으니까 기자나 PD분들의 분위기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엔지니어 직군에는 당시엔 KBS노조가 더 많아서 조합을 옮기기가 좀 힘든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위주로 새노조로 옮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 새노조가 당시 다른 노조보다는 목표나 신념이 좀 더 뚜렷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조를 옮기게 됐어요. 한참 또 파업을 진행하던 중이기도 했고... 그래서 고민 끝에 탈퇴와 동시에 바로 본부노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제 회사 생활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노조 가입은 기본 전제였고요. KBS에 노조가 나누어져 있으니 그중에 저랑 맞는 노조를 선택한 거죠. 기자들은 거의 다 그냥 생각이 같은 분위기여서, 조합 가입서도 한 사람이 모아서 대표로 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조합 가입하는 데, 그리고 노조 자체에 고민이 없었던 시기 같아요.

## 목표와 신념이 뚜렷했던 새노조,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Q 88년 전후에 태어난 분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낯설거나 거부감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세대에서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90년대 생들 위주로 보면요. 그런데 KBS라는 특성, 언론인이라는 특성이 그런 부분을 희석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분위기인데, 저는 생각해 보면 노조 가입할 때 정말 부담이 정말 1도 없었거든요.



저도 처음 입사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걸 그냥 학교에서 동아리 가입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 되게 손쉽게 가입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노동자니까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어요. 그런데 노조 가입할 때 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노조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회사가 좋아하겠다, 갈라져 있어서 이용해 먹기도 좋겠구나... 그래서 좀 슬펐고.

그런데 그중에 어떤 노조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더 뭔가 투쟁적이고 더 열심히 했던 새노조를 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 노조와 회사는 기본적으로 팽팽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Q 88년생 조합원들을 모신 것은 노조와 동감대기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젊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목적이 컸거든요. 지금 조합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파업을 열심히 했었고, 웬만한 노동자들은 겪기 어려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파업을 했었죠. 하지만 노조는 애초부터 회사와는 입장이 다른데 지금 조합이 실제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노조가 무엇을 해도 정말 신뢰가 갔던 건 힘



들 때 함께 싸워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연차축진제 이런 거 막아주신 거는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다른 사안들이 있을 때는 사실 공영노조나 KBS노조가 더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정필모 부사장 논란 때는 (노조가) 왜 우리가 과거에 욕했던 대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노조와 회사는 기본적으로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런 긴장 관계는 허물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노조에서 움직여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은 목소리가 최대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나서야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느낌들이 강하고. 사실 저는 우리 노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최대한 공격을 자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도본부는 지난 1년 동안 내부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한 상태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옳고 그른 게 너무나 선명했다면, 지금은 10 대 0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어떤 한쪽의 목소리만 내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목소리를 내는 걸 아주 꺼린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도본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노조의 모습은 아예 안 보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든 현재 뉴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나아가야 할 지점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추상적이더라도 제언을 좀 했다면. 지금은 그런 역할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는 노조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왜 파업을 했으며 노조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제는 관성적으로 그냥 해요.



어쩌면 '새 새노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KBS 노조든 새노조든, 임원이든 간부든 가리지 않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매우 무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모이면 노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인식이 점점 그거 봐, 바뀌니까 또 똑같아지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요.

솔직히 요즘에 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설명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무관심해져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악플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잖아요.



## 이해 안 가는 인사 여전... 노조가 제 역할 해야

Q.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조합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겠죠.



어려운 시기에 노조 집행부 하시는 걸 저희도 아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기는 해요. 사람들이 새노조 욕하고, “노조 집행부 왜 저래?”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도 속상하죠. 그런데 아까 저는 이세중 조합원 말씀에 너무나 공감해요. 조합이 되게 ‘추수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선두에서 뭔가 날카롭게 비판을 했다면 지금은 아젠다 선정을 잘못 하는 것 같아요.

또 노조의 목표나 청사진 같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회사 적자가 1천억이라는데, 물론 노조가 사측은 아니지만, 노조가 청사진이 있으면 따라갈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뭐 사측이랑 친한 것 같고... 또 코드 인사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불만이죠.



저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부장들보다는 (요즘에) 훨씬 실력 있는 부장이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예전 뉴스보다도 지금 뉴스가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 이해가 안 가는 인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파업했던 선배들이 부장이 됐죠. 그분들이 부장이 된 것 자체에 불만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되죠. 그런데 어떤 선배가 어떤 부장으로 가면 참 적당하다 하는 대체적인 평가는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인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던 분이 갑자기 임원이나 간부로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Q. 최근 인사가 나고 나서, 불만을 노동조합에 호소하시는 조합원들이 있었어요. 조합원들은 사측 견제 역할이 소홀했다고 인식하는 듯합니다.



최소 그전에 했던 수준의 그 날카로움으로 양승동 체제를 비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힘들어도 행동할 때 ‘노조 가입 잘했다’ 느껴

Q. 입사하고 나서 조합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어요?  
‘아, 내가 조합에 들어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때요.



제가 제일 늦게 가입한 조합원이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합 옮길 때 했던 활동들이 인상 깊거든요. 파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광화문 릴레이 발언이라든지. 그 당시 같이 새노조로 옮겼던 젊은 조합원들이 추운 겨울에 같이 행동하면서 전우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힘들고 불이익 많이 받았을 때가 ‘노조 들어오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행동했을 때, 오히려 새노조의 존재감이 컸던 것 같아요. 진정성도 의심받지 않고 그때는.



날카로운 발언이네. 진정성.



저는 입사와 동시에 세월호 때문에 파업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때는 특히 양대 노조가 같이 파업을 하다 보니 정말 회사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때 ‘노조가 파업해서 국가 기간방송을 이렇게 멈출 수 있다’라는 노조의 힘에 가시적으로 놀랐던 것 같아요.

또 고대영 체제 때 5개월 넘게 파업을 해서 이겼을 때 정말 기뻐고, 이후 인사가 났을 때 나랑 지난 5, 6년 동안 술자리에서 같이 고민을 나눴던, 일은 잘하지만, 취재부서 발령 못 받았던 선배들이 취재부서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감과 희열도 분명히 처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노조가 이렇게 바꿨다’라는 큰 역할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겠죠.



Q. 그런데 지금 평가해보면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사람이 바뀌었지 뭔가 시스템이나 상황 같은 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또 예전에 적폐들이 물러나고 나면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뭔가 채널 경쟁력도 약화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우리 과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씁쓸해요.

망해가는 과자 공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자의 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요즘 제작비 줄이고 긴축하는 것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뭔가 시청자에게 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긴축만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 노조 존재의 이유 조합원 '공감'에서부터 찾아야

Q. 나중에 노조 위원장이 되거나 집행부의 일원이 된다고 상상하면, 노조가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작품성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공감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요. 노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합원들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들, 공감의 포인트만 잘 짚어줘도 저는 노조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회사 경영진들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양승동 사장 체제도 벌써 2년이나 됐고, 사실 뭐 웬만한 정책들과 본인들의 비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죠. 수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좋은 평가가 나오든, 나쁜 평가가 나오든 그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 노조가 그런 부분을 분석해줄 수도 있겠고요.

Q. 조합에 피와 살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갑내기인 조합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노조가 영영 안 늙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파이팅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같이 잘 나아가자. 나이가 똑같으니까.”



왜 너만 좋은 애기해!!!





축하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 언론노조 KBS본부 역대 본부장 과반노조 달성 축 하 합 니 다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 회사 앞 카페에서의 새노조 지부 창립식때도, 다음해 3월 출범식때도, 7월 첫파업때도. 그저, 이 길외엔 길이 없어서, 그 절박함이 되돌아보니 힘이었습니다.

이제 '과반노조'가 됐습니다. 10년 넘는 세월의 노력과 고통을 격려합니다. 다만, 그 절박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하는가, 내일의 질문이 남습니다. 3천 조합원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축하합니다.

1대 본부장 엄경철



## 새노조 정신으로 가득한 과반노조를 기대하며...

지난 겨울,  
크기만 하고 생동감이 없어진 가지들을 쳐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행해진 모습이 다소 안쓰러워 보였고,  
그냥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자  
두터운 껍질을 뚫고 새 가지들이 나왔고  
그 어떤 가지보다 활기차고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언론사 노동조합의 근본을 외면해  
생동감을 잃어버려가던 노조와 결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비겁과 안일의 껍질을 뚫고,  
어렵게 새 희망을 틔워낸 새 노조,  
온갖 풍파를 온 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새 노조라는 명칭보다  
교섭대표 노조, 과반노조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과반노조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노동조합뿐 아니라  
KBS가 생기를 되찾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반노조지만,  
그 정신만은 영원히 새 노조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노동조합의 근본을 항상 되새기며,  
생동감을 유지하는 새 노조 말입니다.

2대 본부장 김현석





## “함께 가면 길이 된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 무도한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맞서 ‘새노조’라는 깃발을 든 지 꼭 10년입니다. 공영방송이 생존의 벼랑으로 물리는 동안 우리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되찾는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무모하기까지 했던 3번의 파업과 지난한 투쟁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공/정/방/송. ‘새노조’의 존재이유이자 그토록 되찾고, 또 지키고자 했던 핵심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치를 위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KBS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된 ‘새노조’가 새로운 10년, 또 다른 공영방송의 위기에도 항상 ‘공정방송’이라는 존재이유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3대 본부장 권오훈

과반노조 획득! 축하합니다. 하지만 축하에 앞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과반 노조의 책임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며 품은 뜻과 목표가 단지 우리가 과반을 차지해 집권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변질되고 방향을 잃은 채 일부 세력들을 위해 존재했던 당시 노동조합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터인 공영방송 KBS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파업이후 2년 반, 소통과 협력보다는 강요와 반목이, 청산보다는 타협과 야합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봅니다.

과반노조 달성을 넘어 다시 한 번 우리 노동조합이 닥쳐올 잔인한 위기를 뚫고 갈 개혁과 생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대 본부장 성재호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은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큰 성과를 이뤄낸 6대 집행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성과를 예견했다면 더 일찍 6대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 줬을 텐데요. 돌아보니 5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가 6대 집행부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집행부만의 성과였을까. 한발 먼저 앞서 나가 새노조를 만들어낸 동료들과, 그 새노조를 두텁게 한 동료들과, 그리고 새롭게 힘을 보태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 낸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새노조의 힘이라면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노조 모든 동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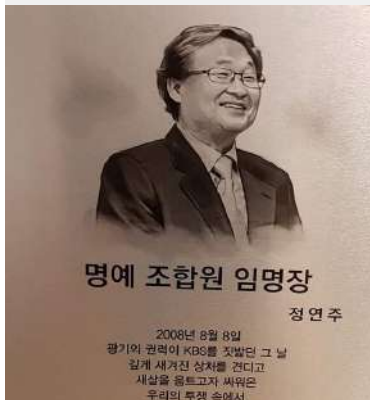
5대 본부장 이경호





## 새노조의 성취를 축하합니다

정 연 주



지금껏 받아본 상패나 기념패 가운데 제가 가장 아름답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패가 있습니다. 2년 전, 조합창립 기념일에 KBS 새노조로부터 받은 ‘명예 조합원 임명장’이 담긴 패입니다. 그 패에는 “당신은 KBS 사장이기 이전에 영원한 선배이고, 동지였고, 친구였습니다.”라는 가슴 뭉클한 구절이 담겨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본부 2천2백 동지 일동’이 전해준 귀한 패입니다.

새노조를 생각하면 늘 아픔이 따릅니다. 새노조의 태출이랄 수 있는 ‘사원행동’이 2008년 8월 8일 사태와 닿아 있고, 그날 KBS 건물 안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현장에서 들리던 절규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다. 이후 여러 부당인사 조치로 겪어야 했던 개인들의 고통, ‘공영방송 KBS’가 무너지는 것에 저항하면서 벌였던 기나긴 파업의 혹독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KBS 정상화’를 위해 쏟았던 저항과 열정으로 ‘외형적인 정상화’는 찾아 왔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아픔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게 아픔으로 남습니다.

1975년 3월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된 이후 지금껏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역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맺어지고 단단해진 동지애라는 사실을 이 나이 들어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파업의 대오를 흐트리지 않았던 그 뜨겁던 동지애라면 무엇을 못할까 싶어요.

‘과반노조’라는 큰 성취를 이룬 새노조가 많은 이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고, 갈등의 매듭을 풀어주는 그런 넉넉하고 성숙한 노조가 되리라 믿습니다.

## KBS는 한국 언론의 중심입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 부 영

누가 뭐라고 해도 KBS는 방송뿐 아니라 한국 언론의 중심입니다.

저는 요즘 제 아내와 함께 KBS 밤 9시뉴스를 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보는 것을 의아해했던 아내는 스스로 뉴스를 봅니다.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KBS의 뉴스와 함께 시사 다큐들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 음악회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KBS 시청하는 것을 노동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KBS만큼 우리나라와 해외에 널리 시청망을 가진 우리 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매체

가 특정 정파나 파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시각에 따라 제작되는 것은 우리 언론 환경을 정상적으로 바꿔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사장이나 사장, 본부장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제작해서 달라지는 게 진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정말 KBS를 미워했다가 사랑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966년 봄부터 2년 동안 KBS 보도국의 외신기자로 일했습니다. 남산 예장동 시절, 정부의 공보처에 소속된 국영방송 시절이었지요. 외근기자들은 기자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였지요. 외신기자야 외근과는 관계 없는 부서였으니까요. 정부의 홍보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KBS가 방송 공사로 독립언론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노동조합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KBS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KBS를 사랑합니다.

## 축하하고 기대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정 연 우

참으로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사원행동>으로 지핀 불씨가 이제는 구성원 절대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급여나 복지보다는 오로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아온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스로 단순한 생활인으로서의 방송인이 아니라 공영방송인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가치인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KBS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이며 이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가입자가 많아졌음을 넘어서서 내부의 구성원들의 집단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KBS 본부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니다. 정치권력 등 외부의 간섭에서 독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숏한 과제가 가로놓여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앞을 떠나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의 시장 침투는 방송 생태계 전반을 위협합니다.

방송의 공공성은 그저 의욕이나 구호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내부 혁신과 변화를 통해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이겨낼 책임이 본부와 조합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포맷을 개발하여 글로벌 방송흐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콘텐츠에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사·보도뿐 아니라 드라마·예능 등을 통해서도 노동·인권·평화·공동체·환경 등의 과제를 녹여내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한국사회 공론과 문화 정체성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본부와 조합원들에게서 공영방송과 우리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2020년 6월 8일(월)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 동지들의 축하인사

### 사원 과반의 노동조합, 그 무거운 책임

전체 직원 과반이 넘는 종사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가지는 힘이 어떤 것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혹독한 탄압을 견뎌내고 반년 가까운 총파업 투쟁을 통해 국가기간방송사를 정상화한 KBS본부 노동조합이 이제 사원 과반을 조합원으로 만들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광화문의 혹독한 겨울, 1주일의 릴레이 발언 때 눈물 흘렸던 우리 조합원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 삶과 일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KBS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1만5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한마음으로 언론자유와 독립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훈**

“어두웠던 시절, 시청자를 위한 올바른 방송을 만들겠다는 KBS인의 작은 목소리가 이제 거대한 흐름이 되어 당당한 과반노조, 교섭대표노조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를 ‘리셋’한 KBS본부 조합원들의 ‘제2의 리셋’을 응원합니다. MBC본부도 항상 그 곁에서 든든한 동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MBC본부장 오동운**

“2008년 한 여름, 오늘 당장 이기지 못할 싸움임을 알면서도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섰던 동지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과반노조의 결실은 이미 그 날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건지 않은 눈발에 내일은 반드시 이기리라는 신념의 발자욱으로 길을 만들어 오신 KBS본부 동지들의 의지가 언론의 미래, 방송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과반을 넘어 더 통큰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노조, 연대하고 투쟁하는 KBS 본부가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SBS본부장 윤창현**

“대업을 이루신 집행부 그리고 자랑스러운 KBS본부 노조 조합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초심과 언론개혁을 잊지 마시고 언론노조의 지본부와 함께 하는 위대한 투쟁의 선봉 KBS본부 노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EBS지부장 이종풍**

“KBS본부의 역사는 공영방송 회복의 역사입니다. KBS본부노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국민들께 정상화된 KBS를 돌려드리기 위한 구성원들의 인내와 성찰을 담아낸 투쟁의 시간이었습니. 과반노조의 위업은 지난 10여년 언론적폐 청산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미디어 생존이 불투명한 혼돈의 시대. 희망을 비추는 등대처럼, 저널리즘의 가치를 수호하는 올곧은 대나무같이 더욱 가열차게 자랑스런 KBS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CBS지부장 박재홍**

# 드디어 과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송사를 만들기 위해서 KBS본부는 10여년 간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과반노조의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정의롭

고 단결된 모습으로 자랑스런 KBS를 만들어 가는데 KBS가 큰 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영방송 #KBS #자랑스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OBS희망조합지부장 박은중**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KBS본부가 출범 12년 만에 과반 노조가 된 것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영언론의 공정보도 수호를 위해 KBS 본부가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지부도 이에 발맞춰서 언론의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쟁!!! **연합뉴스지부장 박성민**

“노조의 힘은 단결된 조합원으로 뭉친 ‘쪽수’에서 시작됩니다. 경향신문지부도 다양한 일상활동을 통해 3년만에야 50여명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KBS본부의 과반 노조 달성은 일상활동은 물론 지난한 ‘투쟁의 열매’입니다. 훨씬 값어치 있는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투쟁이란 자양분에서 성장한 만큼 앞으로 KBS본부가 국민의 큰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젠 언론개혁의 큰 길에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길 기원합니다.”

**경향신문지부장 한대광**

“언론노조 KBS본부가 드디어 과반이네요! 論爭은 살리고 FACT는 밝히는 방송! 개념방송 국민방송 한국방송이 되길! 혁명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지부장 김시연**

“KBS본부의 과반노조 선언을 국민일보지부 구성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첫 마음, 늘 변치 말고 함께하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일보지부장 김현길**

“정의, 개혁, 단결의 기치로 공영방송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KBS본부가 힘 있게 이끌어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어깨 또한 무거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KBS본부가 본부 조합원 3000여 명을 넘어 저희 방송작가를 비롯해 KBS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동료들의 권리 보장에도 함께 목소리 내어주길 바랍니다. 동료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더 높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박수받는 KBS본부가 되길,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공영방송 KBS가 되길 응원합니다. **방송작가지부장 원진주**

## 새 지부장 / 중앙위원을 소개합니다!



**오대환** / 대구경북지부장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합원 곁에서 힘이되는 대구경북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 지역콘텐츠제작 동부지부장

첫 발걸음이 설레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이현중** / 지역콘텐츠제작 서부지부장

조합원 곁으로 보여지는 색이 다를 지언정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다면 함께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형욱** / 영상편집구역 중앙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내 노동환경은, 노노갈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방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노조 KBS본부에 어려운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구역의 조합원 목소리를 대변할 지 무겁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상미** / 뉴스PD구역 중앙위원

본부노조와 함께하게 되어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설렙니다. 뉴스PD가 무얼 하는지 알리는 것부터 본부노조에 부족하나마 힘을 실는 것까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 본부장 칼럼

## 3천 조합원, 성찰의 힘

2017년 9월 가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예은이 아빠는 굳은 얼굴로 KBS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KBS가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서 또다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에서 아이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울부짖을 때, 직원 중 뒤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건널목 앞에 그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에게 “저는 데스크와 갈등 빚어가며 팽목항, 동거차도를 오가며 세월호 인양 취재를 했어요.”라고 면죄부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나의 일을 하기 위해 겪은 고통은 자식을 잃은 고통에 비해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그런데 못나게도 억울합니다. 제작현장에서 몇몇한 KBS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일갈에 고개를 숙이는 동료들을 보니 더욱 착잡합니다.

파업 중 우리 노조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신료 상당하는 동료는 ‘2500원, 커피값에 불과하지만 내고 싶지 않다. 똑바로 하라’는 시청자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자 동료들은 저보다 더 치열하게 데스크에 저항하고 밖에서 질타받는 일을 우직하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노조 없이 혼자였다면 저는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질타와 난관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냉소, 심지어 변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조합원 3000명 과반 노조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성찰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다 함께 성찰하는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꾸짖고 감싸 안으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道伴)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노조원들이 적폐 이사, 사장을 몰아낸 과정이 집요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던 우리의 성찰은 보지 못합니다. 이로움을 셈하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성찰하며 피해를 무릅쓰는 우리 노조의 파업은 낯설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성찰하고 싸웁니다. 우리 노조원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인으로서 자존감이 자랑스럽습니다.

3천 동지 앞에 새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생존, 형평성보다 차원 높게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입니다. 우리 노조는 성토, 변명이 아닌 토론과 모색이 살아있는 성찰의 새 마당을 펼칠 것입니다. 주제와 인물 면에서 예외 없는 성찰의 장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성찰을 거듭하며 성장하는 한,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새노조입니다.

예은이 아버지의 말로 마무리 지으며 다시 성찰을 다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공정언론을, 언론의 독립성을 대통령, 국회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내걸고 언론의 독립성을 파내야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당이 누가 되든, 사장이 누가 되든 끝까지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 유재우